

백운산 자연휴양림 이용객 연 10만 넘었다

개장 17년 만에 대표 관광지로 광양시, 생태 숲 보원사업 펼쳐

광양 백운산 자연휴양림을 찾은 이용객이 10만명을 넘었다. 연간 이용객 10만명 달성은 휴양림이 문을 연 지난 2000년 이후 17년 만에, 지역 대표적 관광지로서 거듭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13일 광양시에 따르면 백운산자연휴양림의 연간 이용객이 지난 11월 17일 만에 처음으로 10만명을 돌파했다.

백운산자연휴양림은 삼나무, 편백, 테다 소나무 등 아름다운 나무가 계곡에 펼쳐져 있고 숲 속 사이로 숲속의 집, 종합숙박동, 산림문화 휴양관, 아영장, 취사장 등 편의 시설을 갖춰 이용객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다. 휴양림 이용객은 개장 첫 해인 2000년 1만 6865명을 시작으로 ▲2014년 7만1460명 ▲2016년 8만 746명 을 기록한 데 이어 지난 11월 기준으로 10만 1869명의 이용객이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

광양시는 이번 10만명 이용객 돌파를



광양 백운산자연휴양림 전경. 휴양림 개장 17년 만에 연간 이용객이 10만명을 넘었다.

〈광양시 제공〉

계기로 자연휴양림을 활성화하는 데 적극 나서기로 했다. 휴양림 내 이용객들을 위한 볼거리를 확충하고 백운산 내 희귀·

특산식물의 관리·보존을 위한 생태 숲 보원사업도 펼쳐 나가기로 했다. 광양시 관계자는 “백운산자연휴양림이

지역의 소중한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기자 kds@kwangju.co.kr

‘전북 1000리 길’ 조성

도내 14개 시·군 각종 둘레길 등 이어 생태·역사·문화의 숨결 느끼게 재단장

전북 모든 시·군의 대표적 둘레길을 연결한 ‘전북 1000리 길’이 조성된다.

13일 순창군에 따르면 전북도는 도내 생태·문화 자원을 기반으로 조성된 도내 14개 시·군의 각종 둘레길 등을 이어서 전북을 대표하는 1000리 길로 만들 계획이다.

도는 연말까지 걷기 좋고 생태·역사·문화 숨결을 느끼는 길들을 전문가와 시·군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선정할 예정이다.

전북 대표 1000리 길로 선정되면 노선·편의시설 정비, 희귀 노선 개발, 안내 체계 구축 등을 더해 걷기 좋은 길로 재단장한다.

또 위성항법장치(GPS)를 기반으로 통합 안내지도, 가이드북 길 홈페이지 등을 제작해 교통수단, 먹거리, 주변 관광자원을 알리기로 했다.

여기에 특화된 1000리 길 홍보 등을 위한 각종 걷기 행사도 열어 전국에 소개하기로 했다.

송하진 전북지사는 이날 ‘순창 선비의 길’ 체험에 나서며 “전북 산하의 명품길을 걸으며 전북의 문화 유산을 만끽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순창 선비길은 동국 18현중 호남에서 유일하게 문묘에 배향된 허서 김인후 선생이 제자를 양성한 훈몽재와 조대 대법원장을 지낸 가인 김병로 선생 생가, 낙덕정, 대법원 가인 연수관을 연결하는 6km 구간이다.

전북도는 앞서 지난 추석 연휴기간, 전주 건지산길, 임실·순창 삼진강길, 진안 고원길, 군산 구불길 등 4개 권역 200리길을 돌며 ‘전북 1000리길’의 발전 가능성을 확인한 바 있다.

순창군 관계자는 “전북 고유의 정체성을 재정의하고 문화유산을 관광자원으로 만들기 위해 순창군을 비롯, 전북도내 14개 시·군의 대표 길을 연말까지 선정, 홍보 마케팅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순창=장영민기자 jyg@kwangju.co.kr



고창 갯벌에서 백합을 채취하는 어민.

〈고창군 제공〉

고창군, 명품 갯벌 사진 공모

고창군이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고창의 명품 갯벌을 담은 사진을 공모한다.

갯벌의 다양한 모습과 생태환경, 주민의 삶, 관광객 모습 등을 표현한 사진이면 된다.

2015년 1월 이후 촬영된 미발표 작품이어야 한다.

오는 30일까지 참가신청서와 사진을 한국사진작가협회나 람사르 고창갯벌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입상작에는 최고 100만원의 상금과 상장을 준다.

/고창=박형진기자 phj@kwangju.co.kr

이다은 명창 ‘판소리 다섯 바탕’ 13시간 완창 기네스 도전 성공



명창 이다은(26)씨가 판소리 다섯 바탕을 13시간 동안 완창해 국내외 세계 기네스 도전에 성공했다. 〈사진〉

13일 한국판소리보존회 전북 익산지부에 따르면 이씨는 익산시 송림문화예술회관에서 지난 1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몰마시는 20분을 제외하고 계속 소리를 했다.

이씨는 직접 창작한 판소리 ‘익산가’를 시작으로 심청가, 흥부가, 적벽가, 춘향가, 수궁가를 무려 13시간 동안 연창했다. 관객들은 추임새를 넣어 흥을 돋웠다.

이씨는 판소리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13시간 완창에 도전해 국내외 세계기록 도전에 성공했다.

판소리 세계 기네스 기록은 2003년 당 시 11세의 나이로 9시간 20분에 걸쳐 심청가와 수궁가를 완창한 김주 리씨가 보유하고 있다.

이다은 명창은 어린 시절 언어장애를 딛고 8세 때 판소리에 입문, 12세에 심청가를 시작으로 23세까지 판소리 다섯 바탕을 모두 완창했다.

그는 복식단전호흡에 전통 성악발성법으로 소리를 배워 10시간 이상 흔들림 없이 원하는 소리를 낼 수 있다.

국내 다섯 바탕 완창자는 고 박동진 명창, 고 오정숙 국창, 안숙선 명창, 이다은 명창 등 4명이다.

이씨는 “중요무형문화재 등극과 함께 판소리 세계화, 저변 확대, 교육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판소리 세계 기네스 기록은 2003년 당

/익산=유정영기자 yjy@kwangju.co.kr

군산시, 어린이 안전대상 평가 대통령상

어린이 전담부서 신설 등 성과

군산시는 13일 행정안전부에서 주최한 제 7회 어린이 안전대상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돼 대통령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어린이 안전대상은 어린이 안전에 대한 관심 제고, 안전관리 수준 향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창의적인 정책 등을 추진한 지자체를 발굴하기 위해 제정됐다.

군산시는 ‘어린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조성’을 목표로 어린이 전담부서 신

설, 어린이 행복도시 조례 제정, 어린이 안전시스템 구축, 어린이 시책 추진 등을 인정받았다. 또 비정부기구(NGO)와 함께 아동인권교육센터와 아동보호기관 유지, 어린이 권리광장 추진, 놀이터 환경진단과 안전활동가 양성, 어린이 안전교육 기반 개선 등에도 공을 들였다.

군산시 관계자는 “군산은 어린이를 키우고 어린이는 군산의 가치를 키운다”면서 “어린이 교육체험 시스템 구축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군산=박근석기자 nogusu@kwangju.co.kr

순창에 친환경 농업연구센터 들어섰다

40여종의 첨단 장비 갖춰

자유무역협정(FTA)시대를 맞아 지역 특성에 맞는 친환경 농업기술을 개발·보급하기 위해 친환경 농업연구센터가 순창에 들어섰다.

13일 순창군에 따르면 친환경 농업연구센터는 순창군 유등면 일대 8000여㎡에 국비 등 총 100여만원을 들여 건립됐다. 센터는 복합연구동, 유기농 종합연구실용화센터, 실증연구온실을 비롯해 40여종의 첨단 장비를 갖췄다.

복합연구동은 지상 2층 규모로 토양환경 및 잔류농약분석실, 미생물연구실 등 친환경 농업에 필요한 연구시설 등으로 구성됐다.

종합연구실용화센터는 젤라틴 키티분해미생물배양실, BM 활성수 생산플랜트, 토착미생물 발효배양실, 천연추출물 생산 플랜트 시설도 갖췄다.

실증연구온실은 지역특산물 작물을 친환경 유기농법으로 실증 재배하는 첨단온실이 들어섰다.

/순창=장영민기자 jyg@kwangju.co.kr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판선·전원주택지

- 원도 익산면 특암리 바다집 2481㎡ 판선·별장적합 2억4천
- 순창군 인계면 감동리 대지 1302㎡ 사할도 적합 7300만원
- 담양 월산면 월평리 전 1689㎡ 편안한 분위기 1억4500
- 장성 북이면 백암틀게이트부근 전 2192㎡ 다용도가능 1억1500

주택·원룸·아파트

- 월산동 소망도 대지 146㎡ 복층형주택 76㎡ 생활편리 1억6천
- 월산동 소망도코너 대지 93㎡ 주택 94㎡ 가계 2관과 집 1억2천
- 월산동 우체국부근 골목 대지 294㎡ 정원과 주택2동 2억2천
- 서동 제일파크 7층 105㎡ 임대도 가능 매도 1억1000
- 서동 대지 185㎡ 상가와 5세대 전세 2억7천 월 55 법인10전환 4억

투자·매도·교환

- 고흥군 동일면 바닷가 땅 9891㎡ 판선 267㎡ 매도 10억
- 월산동 2인아파트 부근 2중주거지 758㎡ 다가구등 적합 7억
- 전북 진안군 산 470100㎡ 공사가 3억4천천선 신고 4억 매도 4억2천
- 담양 창평면 소재지 대지 등 10235㎡ 요양병원 등 최적 30억
- 함평읍 돌머리해수욕장 5606㎡ 요양시설·숙박시설 다가구적합 6억2천
- 양계장 허가부지 장흥읍 15000여㎡ 축사허가도 있음 6억9천
- 담양 월산면 월평리 답 4846㎡ 과수원·농장적합 1억

상가건물

- 영암군 삼호읍 땅 1312㎡ 건물 925㎡ 은행 2억5천 매도 4억3천
- 사무실 적합 농성역부근 2·3층 993㎡씩 분할매도가능 230만원씩
- 월산동 신축 3층 상가주택 대지 175㎡ 1층가게 27평, 2층 원룸1, 투룸2, 3층 인접 27평 은행1억 매도 5억6천(임대가능)
- 유등 모텔 대지 422㎡ 건물 984㎡ 감정 12억 교환가능 7억8천
- 주월동 무등시장부근 대지 209㎡ 다가구 14세대 328㎡ 3억5천

급매

- 장성군 백암사역부근 땅 364㎡ 3층건물 객실 17 매도 2억6500
- 북구 본촌동 공장·창고 적합 1300여평 분할가능 19억5천
- 북구 우산동 모텔 대지 408㎡ 건물 971㎡ 27실 6억7천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앞문앞

전원주택토지

- 장성군 동화면 남산리 1073-7
- 대지 128평, 계획관리지역
- 문화마을 전원주택내 위치
- 침단에서 20분거리
- 현, 36세대중 25세대 거주
- 매매 - 9000만원(조정가)
- 문의. 010-3605-5000

방수 부분설비(누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 시스템!!
최적의 방수 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CMTECH
광주, 전남 시공회사 (주)씨엠테크복합방수

걱정하지 마세요!!
“칠만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주)씨엠테크복합방수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